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대표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시는 영광을 높이며 예배드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시편 24편 7-10절의 말씀처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주님은 참된 영광의 왕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우리 심령에 새기며,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 삶을 맡깁니다.

주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왕이 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과 섬김으로 다스리셨고, 이로써 우리에게 참된 왕국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의 왕국들과는 다르게,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지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그

리고 이 세계가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 불의와 분열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장 33절)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아 저희가 주님의 통치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는 강압적이거나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평화의 통치입니다.

이 평화가 저희의 가정과 교회, 이웃과 나라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가 주님의 대사로서 세상 속에서 평화를 전하며,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땅의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갈등 속에 고통받는 나라들,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진정한 왕이시기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누가복음 4장 18절). 저희가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께서 왕 되심

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사회 속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왕 되신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베드로전서 2장 9절). 저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과 찬양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